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1월 9일



복음나누기

주님 세례 축일(1월 9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루카 3,15-16,21-22)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14번 "나자렛 성가정"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 복음 3장 15절~ 26절까지,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21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루카 3,16)

많은 사람에게 칭송 받던 세례자 요한도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

지금 우리는 하느님께 어떤 말을 들을수 있을까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당시 세례자 요한 인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 그 자체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죄인들 속의 한 사람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속에 계신 것이죠. 하느님이 죄인과 함께 그 속에 섞여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배려죠.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바라보면 이는 비참함입니다. 왜 하느님이 죄인들 속에 있어야 합니까.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인 속에 함께 섞여 있어야 하죠. 그 자체가 비참함 이죠.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 라 세례까지 받으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지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은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 순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들려온 소리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례를 받은 사 람들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요구합니다. 내려가라고, 자신이 낮추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 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14번 "나자렛 성가정"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를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